

한국을 찾았던 축구의 전설들

70년: 에우제비오 35m 골
72년: 펠레 보려고 3만 관중
95년: 마라도나 미친드리블

팀 K리그와 일전을 앞둔 유벤투스 소속의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포르투갈)처럼 그간 한국에는 전설적인 스타플레이어들이 찾아와 국내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축구 황제 펠레는 1972년 소속팀 산토스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찾아 태극전사들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당시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서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펠레.

시초로 꼽히는 이는 1960~1970년대 세계 축구를 주름잡았던 '포르투갈의 영웅' 고(故) 에우제비오다. 1970년 9월 당시 소속팀이던 벤페카(포르투갈)를 이끌고 방한해 정상급 기량을 뽐냈다. 당시 한국은 국가대표 1진 청룡과 2진 백호로 선수들을 나눠 벤페카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에우제비오는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운동장에서 펼쳐진 청룡과 1차전에서 경기 시작 1분30초 만에 중거리포(당시 언론은 이를 30~35m 거리로 표현)를 꽂아 넣은 뒤 전반 1골을 추가하며 5-0 대승을 이끌었다. 이어 백호와 2차전에서도 0-1로 뒤지던 후반 막판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국내 축구팬들에게 자신의 진가를 각인시켰다.

2년 뒤에는 '축구 황제' 펠레(79·브라질)가 한국을 찾았다. 에우제비오와 마찬가지로 소속팀이던 산토스(브라질) 동료들과 함께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맞붙었다. 축구 황제를 보기 위해 이날 동대문운동장에는 수용인원을 훌쩍 넘는 3만 명이 넘는 구름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펠레는 후반 2-0 리드를 잡는 추가골을 성공시켜 팬들을 열광시켰다. 한국은 이후 차범근과 이회택이 연속골을 터뜨렸지만 경기종료 4분을 남겨놓고 레오에게 중거리슛을 허용해 2-3으로 패했다.

아르헨티나가 낳은 '불새출의 스트라이커' 디에고 마라도나(59)도 빼놓을 수 없다. 1995년 9월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보카 주니어스와 한국 국가대표 간의 경기에서 88분을 뛰며 2-1 승리를 이끌었다. 비록 골은 넣지 못했지만 현란한 드리블과 감각적인 패스로 국내 축구팬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반 41분 마카리스텔의 코너킥 헤딩골을 도운 이 역시 마라도나였다. 마라도나는 2017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월드컵 주 추천 행사 참석을 위해 다시 방한해 울드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다.

고봉준 기자

외신들 “깨끗한 선수 향한 또 다른 차별”

호튼, 시상식서 '썬양 패싱' 첫 발단
200m 동메달 스콧도 기념촬영 거부
FINA 결정에도 각국 선수 호튼 지지
CAS가 썬양 잘못 인정땀 FINA 공지

중국 수영스타 썬양(28)을 향한 연이은 타국 선수들의 불만표출에 국제수영연맹(FINA)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대한수영연맹은 “FINA가 23일 회원국들에게 ▲메달 세리머니(시상식) ▲기자회견에서 정치·종교적, 어떠한 차별적인 입장과 행동을 드러낼 경우, 메달을 박탈하거나 향후 대회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선수 행동규범 조항을 신설해 공지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이 추가된 시점이 묘하다. 21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준우승한 맥호튼(호주)이 시상식에서 우승자 썬양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한 직후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당시 400m 정상에 오른 호튼은 은메달리스트 썬양을 향해 “금지약물 복용 선수와 인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썬양 패싱'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국제수영연맹(FINA)이 시상식 보이콧 등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시상식에서 공동 동메달을 획득한 영국 스콧(오른쪽 끝)은 '도핑 논란'에 빠져있는 금메달 수상자 썬양(왼쪽 두 번째)과 함께 하는 기념촬영을 거부해 화제를 모았다.

틀날 때마다 썬양을 저격하며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4년 금지약물로 3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썬양은 지난해 9월 혈액 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훼손하는 등 도핑 테스트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영국 언론에 의해 공개돼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FINA의 경고조처에 반발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고, 9월 판결이 나온다.

시상식에서의 '썬양 패싱'은 호튼으로 끝나지 않았다. 23일 200m 결선 직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공동 3위를

차지한 영국 스콧(영국)은 2위로 골인하고도 선두 리투아니아 선수의 실격으로 금메달을 딴 썬양을 외면했다. 메달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기념촬영에 함께 나서지 않았다. 분을 참지 못한 썬양이 “패배자”라고 고향을 지른 것도 화제가 됐다.

다만 스콧이 FINA의 규정 신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호주 매체는 “새 규정은 200m 직전에 전파됐다”고 했다.

썬양과 FINA의 결정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선수촌에서는 호튼을 향해 박수가 쏟아졌다. 릴리 킹(미국),

애덤 피티(영국) 등도 비슷한 의사를 내비쳤다. 피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도핑은 허용될 수 없다. 썬양은 출전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요 외신들은 “FINA에 반대하면 메달을 잃는다. 깨끗한 선수들을 향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우려했다. 썬양과 호튼의 갈등으로 촉발된 논란이 이제는 견잡을 수 없이 번지는 형국이다. CAS가 썬양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FINA도 공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안팎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썬양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주호·백수연, 결선 문턱까지는 갔는데...

이주호 배영 200m 아쉬운 11위
백수연 평영 200m 준결선 13위

대한민국 수영이 세계선수권대회 결선 진출자 추가 배출에 실패했다.

이주호(23·서울시수영연맹)와 백수연(28·광주시체육회)은 25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

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배영 200m, 여자 평영 200m에서 각각 준결선에 진입했지만 파이널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오전 종목 예선에서 이주호는 1분 57초80에 터치패드를 찍어 42명 중 12위에 올라 상위 16명에게 주어지는 준결선 티켓을 얻었다. 배영에서 세계선수권 예선을 통과한 것은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 이남은(여자 배영 50m) 이후 14년 만이다.

이주호는 그러나 준결선에서 1분57초 68을 기록, 자신이 가진 한국기록(1분57초 67)에 근접했으나 11위에 만족해야 했다.

백수연은 아슬아슬하게 예선을 통과했다. 2분26초56, 16위로 준결선에 올랐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7회 연속 세계선수권에 나선 백수연은 2011년 중국 상하이,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예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결선의 문턱은 높았다. 준결선에서 2분26초29를 기록, 13위에 머물렀다.

한국수영의 이번 대회 예선 통과자는

4명으로 늘었다. 여자 개인혼영 200m 김서영(25·경북도청·우리금융그룹)이 파이널에 올라 6위로 마쳤고 여자 접영 200m에서 박수진(20·경북도청)도 준결선에 올랐다.

여자 계영 800m에서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최정민(21·울산광역시청)-정현영(14·거제고현중)-박나리(31·제주시청)-조현주(19·울산광역시청)로 구성된 여자계영대표팀은 8분08초38을 찍어 12위, 상위 12개국에 주어지는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남정현 기자



유벤투스와 친선경기를 하루 앞둔 팀 K리그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철(수원), 이용(전북), 지성규 KEB하나은행, 박주영(서울),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세정아(대구), 조영욱(서울), 전세진(수원·왼쪽부터)이 나란히 서 주목을 받은 뒤고 있다.

호날두 들러리 매치는 NO... K리그가 주연이 돼야 하는 이유

남정현의 피버피치

울스타전 염두 일찌 비운 연맹
대부분 행사도 K리그서 준비
출전 선수도 팬들 투표로 선정

당대 최고 축구스타로 꼽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유벤투스와 함께 방한한다.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의 프리시즌 친선경기를 위한다. 호날두가 한국 땅을 밟는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

랜드)에 몸담은 2007년 FC서울과의 프리시즌 친선경기 이후 12년 만이고 유벤투스의 방문은 1996년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 이후 23년 만이다.

열기는 뜨겁다. 수십 만 원에 달한 고가의 좌석들이 일찌감치 팔렸다. 비록 매진 발표가 나오자마자 티켓 재판매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당히 높은 수수료가 추가된 '압표'가 등장해 씁쓸함도 함께 남겼지만 이마저도 구입하려는 팬들이 아주 많았으니 흥행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약간의 걱정은 남는다. 주객이 전도될 사태다. 물론 유벤투스를 좋아하는 해외축구 마니아들에게는 '호날두와 유벤투스의 방

한'이 핵심이었으나 이번 경기의 진짜 주인공은 K리그가 돼야 함이 맞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고유의 축제인 울스타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날짜를 비워줬고 스카wing 파트너가 유벤투스로 정해졌으니 말이다.

12년 전의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서울-맨유전을 관전했을 때 조금은(?) 당혹스러운 플래카드를 봤다. 아주 오래전부터 맨유를 사랑했다던 이들이 준비한 'HERE's Another OLD TRAFFORD(여기는 또 다른 올드 트래포드)'라는 문구에 쓴웃음을 짓게 됐다. 이미 지난 얘기지만 그 경기의 주연은 서울이 됐어야 했다. 재주를 부린 꿈은 뒤틀림으로 밀려나고 온왕서방이 쟁쟁한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

았다. 이번에도 솔직히 K리그가 좀더 당당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스포트라이트는 호날두에게 맞춰졌지만, 또 그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행사 이벤트를 준비한 쪽은 '팀 K리그'다. 선수도 팬 투표로 선정했고 팬들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섰다는 25일 사인회와 선별된 팬 100여명이 관람한 오픈 트레이닝도 진행했다.

그런데 프로연맹은 '울스타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외부에 알릴 수 없는 다른 속사정이 있었지만 뒤에서나 말할 수 있는 울스타전이 아닌, '진짜' 울스타전이여야 했다. 바라건대 그저 호날두를 띄워주기 위한 들러리 매치, 그리고 상업력이 '또 다른 토리노 알리안츠 스타디움'이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스포츠부 기자 yoshike3@donga.com